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themahayana.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23호 현대불교
2007년 4월 11일(음력 2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음을 역력히 알아야!

부처님을 숭상해야 하는 이유

문 내 안에 근본이 있고 그 근본이 이 우주 전체의 근본과도 둘이 아니라면 왜 부처님을 숭상해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하나요? 내 근본을 믿는 마음 하나면 될 것 같은데요.

답 가정을 번소월 가나 법당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만 사찰에 가든지 만 기독교에 가든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가진 가집을 그대로 갖기를 원했고 또 부처님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그러다고 해서 답답아 부처님 불상을 불신하거나 또는 모른다는 사람을 갖다 업신여긴다거나, 아는 사람을 높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런 가진 가집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 누구인가 불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생활이나 또는 이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력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장소에서 벌써 우주간 법계에서나 여러 부처님들이 다 아시고 계신 것이 아마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린다 할 때, 예라는 것은 우리 각자 사람마다 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에 내공이 있는 겁니다. 내공이 없다면 바로 숭상이 될 것이고 분별이 없다면 목적이 될 것이고, 또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이 삼합이 바로 삼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종합해서 우리가 한데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인간이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 내공에 모든 걸 예배 올린다는 건데, 어디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내공의 부처님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원에, 어느 도량에 갔다 하면 벌써 법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해서 혼자 먹는 거 보셨습니까?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혼자 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자기 개별적인 능력이 아니라 같이, 불성도 똑같이 같이 움직여야 하고 해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각각 먹지만 하는 것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올라가서도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릴 때에, 예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내 내공의 마음이니,

내 내공과 부처님의 내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아래가 예배를 올리는 거죠. 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바로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숙연하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자기 혼자 무엇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우리가 자기 혼자만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자기 지금 육신과 더불어 망가지는 법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소도 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뜻이 그겁니다. 혼자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49년 설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웠건만 나는 그렇게 불태운 사이도 없고 말한 사이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 잘 생각해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세울 게 도대체 뭐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도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올리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과 부처님의 주인공,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풍기고, 온 누리를 비춰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믿고 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공의 그 주인공 자체가 바로 전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올릴 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이 왜 그렇게 높고 광대무변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보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더 행을 잘하시고 말도 더 잘하시고 더 우주법계를 싸고 뒤집었다 제쳤다. 뒤집었다 제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바로 여러분과 부처님의 그 내공에, 그 마음 자체와 부처님의 마음 자체와 둘이 아닌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삼 배를 올릴 때, 예전 같으면 삼 배를 올리고 난 뒤에 뒷걸음질을 일곱 번을 치고 다시 돌아서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나는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둘이 아닌 뒷자리에다가 예를 올리고, 배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육신과 마음, 사랑적인 이 마음과 육신이

있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그 공양을 다 올리고도 남음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되 집에 오면, 벌써 법당에 올라가면 밥 한 그릇을 올리고 공양 한 그릇 올리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안팎이 없이 그렇게 겸손하고 알뜰하게 해야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법당에 와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만치 아무렇게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쓴다면, 항 한 개비, 초 한 자루를 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불의 심지가 바로 맥의 마음인 줄 알아야 하고, 불의 심지가 마음이면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뚱이가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따뜻한 기운이 나오며 어떻게 빛이 비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켜지 말고 마음으로만 켜세요, 잘 켜질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팎이 없이 켜야 이 소립니다. 안팎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배를 하고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자기 자성불에, 포괄된 자성불에게, 우주를 덮고 있는 자성불에게 예를 하고 배는 자기 몸뚱이, 육신이다,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고 나면 다리를 잘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죠? 그와 같이 나무를 갖다가 이 내 주인공에 맡기고 한다면 마취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나무라는 그 자체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사람으로서 화(化)하게 되는 거죠. 나무도 몇백 년 내려오면서 사람의 그 마음과 접한 그런 나무가 있고 또 아주 단생의 나무가 있고 그런데, 모두 생명을 벗겨 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무명을 벗겨 주는 것이 원칙이구요.

또 그건 그것대로 나무로 쓰고요, 또 소는 소대로 고기로 약으로 쓰고요, 또 소의 무명을 벗겨 주고요, 그러면 예누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고받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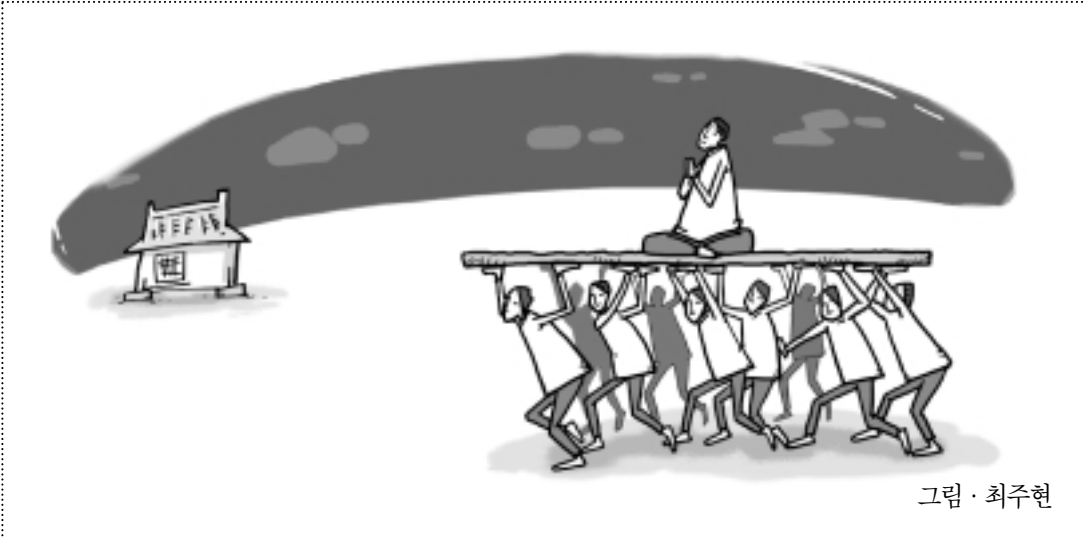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거기 그저 '예배 올립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뿐만 아니라 삼세 부처님들, 조상들, 선지식들한테 위로는 예배를 올리고 아래로는 자기를 자기가 굴복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도리라고, 진정한 부처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하지 어떻게 갖다가 올려야만 하느냐. 그럼 마음으로부터 먹지 밥을 왜 먹습니까? 아, 마음으로부터 먹지 왜 밥을 먹어요? 마음으로부터 먹어도 배부르다면 그냥 마음으로부터 잡아요. 그리고 밥이 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죠. 어디까지나 부처님 법을 아시는 분이려면 밥을 먹되 내가 한 그릇을 갖다 놓고 예를 올리고, 한마음 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에 삼세의 부처님들을 다, 유생 무생의 어떠한 생명도 빠짐없이 한데 합쳐서 내 내공에

나무를 벨 때의 마음가짐

문 도로 공사를 할 때 땅을 파고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 근래에 봄이 되어서 서울 외곽의 공사를 하느라고 산의 나무를 여러 그루 베어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 또한 살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나무를 벨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 이게 우리가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나무의 목신(木神)이라는 것도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듯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게 상대성으로 아픔을 느끼고 상대성으로 원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생이 되죠, 살인마가 되는 거죠. 남의 거 툰 안 내고 훔쳐 오면 도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관법(觀法)을 가르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동 분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즉 말하자면 이 일체 주인공에다 모두 놓는 거는 주인공이 포괄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공동 분담이 되는 거죠. 분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살생을 했고 어느 사람이 살생을 안 했고 이게 없어요. 공동 분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놓고 하면, 그냥 주인공에다 놓고 하면 그냥 그 목신(木神)의 무명이, 나무라는 목신의 무명이 벗겨지죠. 그건 잘라서 다른 걸로 쓰고, 그 생명의 근본은 그냥 거기다 놓으면 그냥 한 찰나에 사람이 돼 버려요. 사람이 돼서 그냥 또 다시 배울이 되죠. 인도환생으로, 사람의 이 마음과다 가 천만 개의 영령(英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가 공(空)했는대 뭐가 있습니까? 나 하나가 공했는데, 그것도 공이예요. 그러니까 놓은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두드러지지 않죠. 그리고 꺼내고 꺼내도 즐지도 않는 법이구요.

그러니까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고 나면 다리를 잘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죠? 그와 같이 나무를 갖다가 이 내 주인공에 맡기고 한다면 마취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나무라는 그 자체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사람으로서 화(化)하게 되는 거죠. 나무도 몇백 년 내려오면서 사람의 그 마음과 접한 그런 나무가 있고 또 아주 단생의 나무가 있고 그런데, 모두 생명을 벗겨 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무명을 벗겨 주는 것이 원칙이구요.

또 그건 그것대로 나무로 쓰고요, 또 소는 소대로 고기로 약으로 쓰고요, 또 소의 무명을 벗겨 주고요, 그러면 예누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고받았

22면으로 계속

소주천小周天 2기 모집

무너지지 않는 금강삼매로 지혜의 빛을 밝히고, 몸과 마음을 닦아 생명의 대도로 들어가시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삼매가 없고, 삼매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삼매가 있는 사람은 진실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법구경法句經Dhammapadam』

대승회 내공법內功法은 윤회의 정점을 융합한 것입니다. 대승경典大乘經典과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하며, 진전도金眞道 남종의 금단대도金丹大道의 하품단법을 아울러 담아 갑니다. 무원無願·무상無常·공공의 삼삼매三三昧를 이루어 완전한 지혜(반야般若)를 밝히는 길입니다. 진공묘유真空妙有의 본성本性을 깨달아, 생명의 기운을 끌어모아, 대도大道로 들어가며, 정신을 기울지 않게 하여 해탈解脫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성명쌍수性命雙修를 내포합니다. 혜慧는 성성을 밝히는 것이고, 정定은 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승회의 수행은 먼저 정定과 명을 닦고, 연후에 혜慧와 성성을 닦아 밝혀나 갑니다. 처음에는 명공明功에 더 중점을 두고 수련하여 선천先天의 명을 다소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삼매의 기반을 이루고, 상승상공으로 갈수록 성공성功에 중점을 두어 깨달음을 얻어 갑니다.

공개강좌 무료 시공施功 있습니다

무료 공개 강좌	2007. 4. 14(토), 15(일), 18(수), 19(목) 오후 7:00~9:00
강좌	인사말, 소주천 과정 소개(1시간) / 시공(1시간)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개강	2007. 4. 20(금) 오후 7:30
과정	12개월(주 1회) / 도덕보장, 금강경, 윤회선 경전

치유명상 무료 과정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간이簡易한 길이 있습니다.

쉽고 효과가 빠릅니다 (종교신앙과 관계 없습니다)

효과	*신소 공금이 원활하여 호르몬 분비와 기혈 순환이 조절됩니다. *면역기능과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만성질환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이 완화됩니다.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일시	2007. 3. 12~5. 31
시간	오전반 10:00~11:00 월~금 오후반 15:00~16:00 월~토 저녁반 19:30~20:30 수, 목
과정	도인법 / 스림오법, 오음곡 / 108식 호흡 윤회선 경전 강독

*수시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www.themahayana.org

대승회는 윤회를 아울러 배우고 수행하는 치유와 나눔의 모임입니다

내공명상센터 Tel. 02-538-71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16 충암B/D 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6번 출구)

현대불교신문 지사모집 안내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강원 : 남부 - 원주, 정선, 영월, 평창 일원, 북부 - 춘천, 철원, 양구, 화천, 홍천 일원
- 경기 : 남부 -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북부 -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 충북 : 제천, 음성, 진천, 괴산 일원
- 충남 : 서산, 아산, 당진, 예산, 청양, 보령 일원
- 경남 : 마산, 창원
- 전남북 : 광주지역/나주, 목포/순천, 여수/전주, 익산 일원
- 제주도 전지역

2) 포교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획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30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이동격 차장
- 전화 : 02)2004-8214 / 팩스: 02)737-0696 / 이메일 jabi1522@empal.com

현대불교신문사